



김희중 도서출판 공경원 대표

“믿음·공경심 갖고 독경”

“<금강경> 독송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느냐가 중요해. 경전에 지극한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부처님께 직접 법문 듣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희중 거사(48·도서출판 공경원 대표). 그는 <금강경>과 만난 지 40여년, ‘제대로’ 읽기 시작한지 20여년 된 <금강경> 독송의 달인이다.

경북 왜관의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 거사는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도 새벽마다 부친과 함께 흥국사에 올라 약수터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예불하며 지냈다. 예사롭지 않은 불언이지만 어렸던 김 거사에게 불교는 어렵기만 했다.

김 거사를 부처님 품으로 인도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힌 말더듬 습관이었다. 김 거사가 ROTC 장교로 군복무 하던 때다. 부대원 수백 명을 앞에 두고 구령을 불어는데 ‘부대 차렷’에 이어 나와야 할 ‘경례’ 소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신체적 단점에서 비롯된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김 거사는 암시법, 초월명상, 위빠사나 등 수행에 집착했다. 고등학교

是虛妄’는 구절은 내 생각, 견해는 모두 틀렸다는 말이다. 내 뜻대로 하면 재앙이 되고, 부처님에게 맡기는 것이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풀이했다.

그는 <금강경> 독송으로 얻은 지혜와 가피에 안주하지 않고, 하심(下心)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식집을 겸한 무료급식소인 ‘하심정(下心亭)’ 자원봉사는 <금강경> 이론을 실천실수(實參實修)하는 수행처인 것이다.

김 거사는 “하심정을 운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탐심(貪心)과, 사랍들과 부대끼며 일어날 수 있는 진심(瞋心)을 점검한다. ‘<금강경> 마인드 경영’을 준비하며 공부를 계속하니 치심(癡心)도 일어날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는 ‘스스로 하심정에 출가한 사람’이라 말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봉사도 했으니 이전 고귀한 가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그는 스승 김원수 법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 초 22년 교직생활도 정리했다.

“업장이 태산 같다는 말을 출가하려는 알겠더군요. 가족, 친지는 물론 도반들도 출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혼들었던 김 거사를 말없이 지켜본 이는 김원수 법사였다. 김 거사는 “누구

‘금강경’ 뜻 알고 읽으니 환희심 안주하지 않고 무주상보시 실천

교사를 지내며 방학이면 산사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 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홍익대 교수)를 만났다. 눈이 번쩍 뜨였다.

“<금강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도반의 안내로 바른법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김원수 법사님이 <금강경>을 설명하는데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수행한다면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 이래서 선지식과의 만남을 일대사인연이라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는 “선지식(김원수 법사)의 설법을 듣고 나니 <금강경>에서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하듯 환희심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읽으면 좋다가에 뜻도 모르고 읽던 <금강경> 내용을 알고 읽으니 재미가 났다. 독송 소리는 천상의 선율처럼 들렸다.

당시 경기 광명시의 집, 서울 신림동 학교, 경기 원당의 법당을 매일 오가며, 자시(子時, 밤 11시~새벽 1시)마다 <금강경>을 7회씩 독송하는 ‘자시 가행정진 기도’도 했다. 3년간 <금강경> 독송에 매진하던 어느 날, 김 거사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체무비을(涕淚悲泣)’ 하듯 눈물이 북받치는 경험을 했다. 그 후 평생을 괴롭히던 말더듬 습관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겠다(我皆普入 無餘涅槃)’라고 말씀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모든 분별과 갈등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김 거사는 “모든 형상들은 다 거짓이고 헛됐다(凡所有相 皆



나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식”이라 강조했다. 김 거사는 “아직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선지식 만나기를 발원하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서 큰 나무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발원은 신심과 원력으로 작은 씨를 띄워 큰 나무로 키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20여년간 <금강경> 독송으로 키운 그의 발원은 하심정의 대들보가 됐다. 반야의 지혜가 만행화(萬行花)로 활짝 핀 그의 발원은 오늘날 미소로 손님을 맞는다. (02)337-1636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박종린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내안 불성 찾아가는 몸짓”



“10여 년 전 100만배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절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절하다보니 2007년 12월 300만배를 돌파했고, 현재도 계속 수행중입니다.”

박종린 위원(53·동국대 역경원은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약속이 있어 늦게 귀가할 때조차 여가시간이나 업무 중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하루 108배 이상 절하는 ‘절수행의 달인’이다. 사무실 빈 공간 한 칸에 놓인 <만불명호경>과 방석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그가 절수행에 매진하는 ‘생활 수행처’다.

박종린 위원은 현재 인터넷 동호회 불력회(cafe.daum.net/buddhapower) 운영자로도 활동한다. 불력회는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아닌 부처님의 힘 즉, ‘참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수행 동호회다. 박 위원은 동호회에서 초심자들의 수행과 충을 상담하고, 매일 군법당에 들려 설법하는 등 포교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3000배 절야정진도 박종린 위원에게는 소중하다.

불자인 어머니를 통해 모태신앙으로 불연을 맺은 박 위원은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에서 불교교리 기초과정을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워왔다. 구도회 영향으로 생활·참여 불교

“요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소리를 들어 ‘나쁜 업’을 쌓고 있습니다. 염불절을 하면 몸과 귀, 입 모두가 부처님을 향하게 돼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 나’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길입니다.” 박종린 위원이 권하는 ‘염불절’은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독송하며 다시 귀를 통해 부처님 명호를 들어 일체존재의 근본인 부처님께 귀의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수행법이다.

‘절 수행의 달인’ 박종린 위원이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절수행에 몰두해 처음에는 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수행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작게는 가족, 크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가족들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린 위원은 본인만을 위해 수행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찰에서 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처님 전에 빌지만, 그는 부처님 명호만을 독송할 뿐이다.

“사람들 자신이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절을 합니다. 내 개인의 수행으로 어떤 한 사람이

아파도 바빠도 하루 1080배 기본 ‘나무아미타불’ 외며 하는 염불절

부처님 가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각 지역·국가로 퍼지고 나아가 평화·공존의 세계가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박 위원의 발원은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육조단경>의 말씀과 닮았다.

박종린 위원이 불자들과 통화할 때 ‘어보세요’ 대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에게 “아 나는 불자였지”라는 자각을 유도해, 각자 자신의 불성을 찾아가 권하는 박 위원의 배려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인사말에 어색해하고 축스러워 했지만, 취지를 알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 중이다.

박종린 위원은 “일상 속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 세상이 불심으로 가득해 진다”며, “수행을 다짐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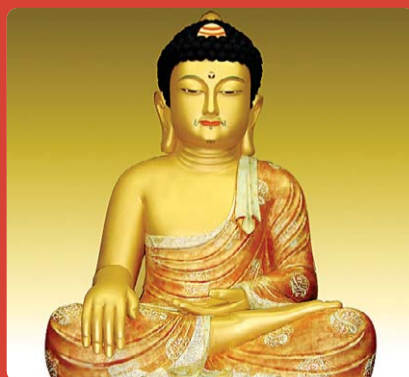
박 위원은 “처음부터 3000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힘들지만, 아침·저녁 삼귀의와 사홍선원을 하며 3배를 하는 식으로 수행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절은 몸 움직이는 수행인만큼 때로는 계를 피우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전제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해 놓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어느새 습관처럼 몸에 밴다”고 덧붙였다.

절하기가 생활의 일부가 돼 “하루라도 절을 건너뛰면 어색할 정도가 됐다”는 박종린 위원, 새롭게 500만배를 목표로 염불절하고 있는 그의 수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진섭 기자 yeam@buddhapia.com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응두...
- 연, 법상, 목어, 불명예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